



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,
특허로 더하는 행복

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	과장 서동욱 042-481-5959 사무관 전형곤 042-481-8144
	2016년 11월 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1월 2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특허청, 전국 경찰 수사관과 짝꿍단속 워크숍 개최

-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11.3~4일 충남 보령시 대천 파로스에서 '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(이하 '특사경')과 전국 경찰 지재권 담당 수사관과의 수사공조를 위한 워크숍'을 개최한다.
- 동 워크숍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특허청 특사경이 발족된 이후 단속협력 차원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,
 -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,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공조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.
 -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허청 특사경, 전국 경찰서 지재권 담당 수사관,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▲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정책 ▲특허청·경찰청 위조상품 단속 우수사례 ▲위조상품 식별요령 ▲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유·교육·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.

-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재권 담당 수사기관간 상호공조를 통해 위조상품 제조·유통 근절에 공동 대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하면서 “양기관의 공조체제 강화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한편, 특허청은 특사경 출범이후 위조상품 제조·유통 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, 더욱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전국 경찰 지재권 담당 수사관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,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.